

## 에스겔 40-48장의 해석과 설교적 함의

이 희 성\*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에스겔 40-48장의 성전 환상을 둘러싼 해석학적 난제를 재검토하고, 본문이 지닌 신학적 구조와 설교적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알레고리적, 문자적-미래적, 문학적-상징적, 신학적-종말론적 해석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본 논문은 각 견해의 장점을 수용하되 문자주의의 역사적 한계와 순수 상징주의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구속사적-모형론적 해석을 채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전 측량과 구조, 제사 규례, 제사장과 군주 제도, 생명수 비전, 땅 분배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거룩의 확산이라는 통일된 신학적 패턴 속에서 분석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에스겔 성전 환상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성전 사역, 성령의 임재, 새 예루살렘 종말론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재해석되는지를 정경신학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본 논문은 이 해석학적 성과를 설교 현장에 적용하여, 에스겔 40-48장을 도덕적 교훈이나 난해한 환상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 행위와 은혜에 근거한 설교 텍스트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거룩, 공동체 윤리, 교회와 예배, 종말론적 희망에 대한 설교 원리를 도출하고, 설교자가 본문 속 하나님의 활동을 중심으로 청중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돕는다. 결론적으로 에스겔 40-48장은 단순한 성전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회복된 새 창조 공동체의 구조를 제시하는 종합적 신학 비전이며, 오늘날 교회의 설교와 신학에 지속적인 해석학적·목회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한 공동체, 에스겔 40-48장, 성전 환상, 구속사적-모형론적 해석, 하나님의 임재, 설교적 함의

• 논문 접수일: 2026년 1월 10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2월 3일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

• 논문 심사일: 2026년 1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5일

## I. 들어가는 글

에스겔 40-48장은 본서의 결론부를 이루는 장엄한 성전 환상으로 서, 에스겔 신학의 정점이자 회복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가장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성경 신학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sup>1)</sup> 이러한 소외와 난해성은 본문 자체가 지닌 언어적, 장르적, 신학적 복합성에 기초한다. 40-48장은 복잡한 측량 도면과 구조를 정교한 기술적 언어를 통해 묘사한다. 과연 이 언어들을 통해 실제 건축 설계도를 제시하는지 아니면 상징적 장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 내러티브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8-11장의 성전 심판 환상과 43장의 영광의 귀환 텍스트를 연결하는 구조적 기능은 분명하지만 본문이 제시하는 성전, 제사 규례, 지도자 규범은 새로운 제의 체계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구조와 장르적 모호성으로 인해 전승사, 문헌비평, 정경신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으며, 본문 연구의 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sup>2)</sup> 이러한 학문적

- 
- 1) Brevard S. Child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165; Willem A. VanGemer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An Introduction to the Prophetic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1996), ; Peter J. Gentry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Crossway, 2012), 470-481; Stephen G. Dempster, *Dominion and Dynasty: A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NSBT 15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4), 171-172.
- 2) 진화론적 관점에서 에스겔서 본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부터 시작하여 헬셔(Hölscher), 포러(Fohrer), 게세(Gese) 등의 다양한 비평학자들은 에스겔서의 통일성을 의심하고 본문의 전승사적 층화(stratification)를 강조한다. Julius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New York: Meridian, 1957); Gustav Hölscher, *Hezekiel: Der Dichter and Das Buch*,

난제는 설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설교자들은 40-48장을 다루는 데 있어 주저하고 본문을 목회적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에스겔 설교는 비교적 선명한 메시지가 담긴 장들에 집중되는 반면, 40-48장은 실천적 교훈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설교적 소외는 에스겔 결론부의 신학적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본문의 종말론적 회복의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에스겔 40-48장의 성전 환상을 구속사적-모형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신약의 성전 이해와 연결시키고, 현대 한국 교회의 설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석 및 설교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것이다. 첫째, 40-48장을 둘러싼 주요 해석학적 논쟁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둘째, 본문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분석하여 에스겔 결론부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셋째, 에스겔 40-48장과 신약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여 본문이 신약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문을 현대 설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스겔 결론부가 가진 신학적 풍성함을 다시 조명하고 설교 현장에서 이 본문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본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라는 주제가 오늘날 교회와 신학의 중심적 요청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BZAW (Giessen: A. Topelmann, 1924). Georg Foher, *Ezechiel*, H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57); Hartmut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iel (Kap 40.48):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Tübingen: Mohr Siebeck, 1957). 비평적 연구에 대한 상대적으로 보수적 관점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Walter Zimmerli, *Ezekiel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Chapters 24-48*, trans. James D. Martin,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79).

## II. 펴는 글

### 1. 성전 환상의 본질: 해석학적 논의

에스겔 40-48장은 고도로 조직화된 공간 구조와 제의 규정, 땅 분배가 결합된 독특한 환상으로서, 그것이 실제 건축 계획인지 상징적 종말론 비전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아 왔다. 본 절에서는 주요 해석학적 접근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 장단점을 평가한 뒤, 본 논문이 채택하는 해석적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 1) 알레고리적 해석

성경 해석 역사에서 에스겔에 대한 본격적인 주해는 Origen(185-253)부터이다.<sup>3)</sup> 그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본문의 더 깊은 영적, 도덕적 의미를 찾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추구했다. 예를 들면 40-48장의 성전 환상의 세부 사항들은 교회의 조직, 그리스도의 몸, 개인의 윤리적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sup>4)</sup> Jerome(347-419/20)은 새 성전 도성의 환상은 온 세상의 교회 건물을 위한 것이고 건물의 실상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보았다.<sup>5)</sup> 교황 Gregory I (540-604)는 그리스도에

3) E. A. de Boer, *John Calvin on the Visions of Ezekiel: Historical and Hermeneutical Studies in John Calvin's Sermons Inédits, Especially on Ezek. 36-48*, *Kerkhistorische Bijdragen* 21 (Leiden: Brill, 2004), 19. 에스겔서의 환상 본문에 대한 오리겐의 설교는 두 편이 있다(겔 1:1-6과 44:1-3); Origen, *Homelies on Ezekiel*. French & Latin, ed. M. Borret (Paris: Editions du Cerf, 1989), 15.

4) Margaret S. Odell, "Reading Ezekiel, Seeing Christ: The Ezekiel Cycle in the Church of St. Maria and St. Clemens, Schwarzrheindorf", in *After Ezekiel: Essays on the Reception of a Difficult Prophet*, eds. Paul M. Joyce and Andrew Mein (T&T Clark: New York, 2011), 124-36.

5)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Turnhout: Brepols, 1953), 554, 1. 163ff.

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도덕적 의미로 본문을 해석했다.<sup>6)</sup> 초기 기독교 전통은 본문의 영적 의미를 감동적으로 도출하고 기독교론적인 묵상으로 전개 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의 가장 큰 단점은 “성경 본문이 해석자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이다.<sup>7)</sup> 본문 해석의 일정한 기준을 상실한 채 해석자의 주관이 텍스트를 압도할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회적, 영적 적용 가능성은 일정 부분 수용하되, 해석의 주관화와 본문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 알레고리의 무제한 적용은 삼간다.

## 2) 문자적-미래적 해석

세대주의적 해석 전통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세부적인 제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천년 왕국과 같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물리적으로 성취될 것을 주장한다. Jerry M. Hullinger는 성전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언 문학의 정상적인 해석 원칙에 부합하고, 천년 왕국에서도 오염 제거라는 제의적 목적을 위해 에스겔 40-48장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8)</sup> Crawford H. Toy는 성전 환상 본문이 종말론적 비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현될 국가·성전 체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그 이유는 상세하고 체계적인 제사 규례, 건축 치수, 토지 분배 등은 현실적 운영을 전제로 한 “법적·행정적 문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W. C. Kaiser는 에스

- 
- 6) F. L. Battles, *Gregory the Great: Homilies on the Prophet Ezekiel, Book I: A Translation and Critical Study*, vol I (Ph. D. Diss., Hartford Seminary Foundation, 1950), iv.
- 7) De Boer, *John Calvin on the Visions of Ezekiel*, 22.
- 8) Jerry M. Hullinger, “The Problem of Animal Sacrifices in Ezekiel 40-48”, *BSac* 152 (1995): 279-89.
- 9) Crawford H. Toy, “On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Ezek. 40-48”, *JBL* 50:1 (1931), xlv.
- 10) Toy, “On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Ezek. 40-48”, *JBL* 50:1 (1931), xlv.

겔의 성전 환상을 앞으로 도래할 제 3 성전 건축을 예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1)</sup> 하지만 비현실적 성전 규모, 환상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 부재로 인해 역사, 지리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엇보다 제사 규례(43-46장)가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히 9-10장)과 충돌하는 신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자적 접근이 제공하는 구조적, 역사적 사실성은 부분 수용하되, 미래 문자적 성전 건축으로 보는 해석은 채택하지 않는다.

### 3) 문학적-상징적 해석

반면 여러 학자들은 에스겔 성전 환상을 특정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Steven Shawn Tuell은 에스겔 성전을 천상의 원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언어적 상징(verbal icon)” 또는 “새 창조 질서의 문학적 재현”으로,<sup>12)</sup> Kalinda R. Steveson은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에 대한 문학적 상징으로 이해했다.<sup>13)</sup> Susan Niditch는 우주를 구조화하고, 혼돈을 제한하며, 신성 영역과 인간 영역의 관계를 언어로 재정의하는 상징 체계라고 해석한다.<sup>14)</sup> Jon D. Levenson은 성전을 우주의 축이자 창조의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성전 환상을 “새로운 창조

11) Walter C. Kaiser, *Preaching and Teaching the Last Things: Old Testament Eschatology for the Life of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111-17. L. E. Cooper나 Charles C. Ryrie도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기간에 발생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Lamar E. Cooper, *Ezekiel*, NAC 17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4), 351-53; Charles Caldwell Ryrie, ed. *The Ryrie Study Bible: New American Standard Translation* (Chicago: Moody Press, 1978), 1289.

12) Steven Shawn Tuell, “Ezekiel 40-42 as a Verbal Icon”, *CBQ* 58 (1996): 649-64.

13) Kalinda R. Stevenson, *The Vision of Transformation: The Territorial Rhetoric of Ezekiel 40-48* (Atlanta: Scholars Press, 1996), 11-20, 150.

14) Susan Niditch, “Ezekiel 40-48 in a Visionary Context”, *CBQ* 48 (1986): 208-24.

질서의 상징적 건축”으로 해석했다.<sup>15)</sup>

이 견해는 성전의 공간 구조를 통한 거룩의 위계화, 임재 회복의 상징성을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전의 치수, 제사 규례, 직분 체계 등 제도적 언어를 지나치게 상징으로 환원하는 경향은 본문의 제도적, 공동체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학적-상징적 해석의 통찰(창조, 임재, 거룩의 상징 구조)은 중요하게 평가하되, 본문의 제도적 현실성까지 포괄하는 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신학적-종말론적 해석

이 견해는 에스겔 본문의 상징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본문의 신학적이며 종말론적 의미를 강조한다. John Calvin은 에스겔 40-48장을 실제 건축될 성전의 청사진이 아닌 영적이며 종말론적 비전으로 이해했다. Calvin은 ‘본문의 모든 요소를 문자적으로 재건하려는 해석은 의미 없는 세부를 강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충만을 희석한다고 했고, 순수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도 본문의 역사적 기반과 언어적 구조를 파괴한다’고 비판한다.<sup>16)</sup> Moshe Greenberg 또한 극단적 문자주의나 순수한 상징주의를 거부하고 역사적 실행 가능성보다 신학적 목적이 더 큰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스겔 성전은 단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안에 영속하도록 고안된 신학적이며 사회, 윤리적 공간 장치라고 말한다.<sup>17)</sup> Block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

15) Jon D. Levenson, *Theology of the Program of Restoration* (Missoula: Scholars Press, 1976), 7-24; Levenson, “The Temple and the World”, *JR* 64 (1984): 275-98.

16) De Boer, *John Calvin on the Visions of Ezekiel*, 227-28.

17) Moshe Greenberg, “The Design and Themes of Ezekiel’s Program of Restoration,” *Interpretation* (1984): 181-208.

원과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라는 신학적 해석을 한다.<sup>18)</sup> G. K. Beale은 성전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종말론적 성전(하나님 임재가 우주 전체를 채우는 성전)으로 읽으며, 성전을 건물에서 실현된 존재론적 임재(realized divine presence)로 전환한다.<sup>19)</sup> 즉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과 신약 시대에 실현된 영적 실재와 연결되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은 본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1) 성전 파괴 후 회복이라는 역사적 맥락, (2) 거룩, 임재, 질서라는 신학적 중심 주제, (3) 신약에서의 성전 재해석(요 2:19-21; 계 21-22)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해석은 본문의 특정 요소는 설명하지만, 전체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의 역사적인 차원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징적이며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고 신약과 연결점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해석이 필요하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단순히 문자적이거나 추상적인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연속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종말론적 실체의 청사진으로 해석하는 모형론적이며 통합적인 모델이 요청된다.<sup>20)</sup> 따라서 방법

18) Daniel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Eerdmans, 1998), 501-6. 블럭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종말론적인 환상이 아닌 단지 “고상한 영적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19) G. K. Beale,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340-54.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Andrea L. Robinson, *Temple of Presence: The Christological Fulfillment of Ezekiel 40-48 in Revelation 21:1-22:5* (Eugene, OR: Wipf & Stock, 2019).

20) Drew N. Grumbles, *YHWH Is There: Ezekiel's Temple Vision as a Type* (Eugene, OR: Wipf & Stock, 2021). 그림블즈는 에스겔 환상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할 것을 강조한다. 구약의 맥락 안에서 환상의 역사적인 실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신약의 새 성전에서의 성취를 바라보는 해석이다.

론적으로 본 논문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 본문을 문학적, 신학적 단위로 읽는 정경적 접근법과 구속사적-모형론적 독법을 결합하여 해석한다.

## 2. 에스겔 40-48장 핵심 주제에 대한 해석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해석들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에스겔 성전 환상에 대한 핵심 주제들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1) 성전 측량과 구조에 대한 해석(겔 40-42장)

40-42장은 성전 환상의 도입부로서 천사의 인도 하에 성전의 전체 구조와 성소 주변 구역이 정밀하게 측량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 본문의 해석을 위한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전 측량과 규모의 의미이다.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성전의 상세한 치수가 물리적 성전 건축을 위한 청사진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40:5과 42:15-20에서 성전 측량에서 사용되는 단위가 일반 큐빗(약 45cm), 긴 큐빗(20.5인치, 약 52cm), 리드(약 6 큐빗)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전체 면적이 크게 달라진다.<sup>21)</sup> 만약 리드(reed) 사용 시 실제 면적은 1.6km<sup>2</sup>가 되고 솔로몬 성전의 30배 이상, 예루살렘 전체보다 더 큰 규모이다. 본문이 사용하는 단위는 일관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성전 측량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성전의 구조물과 문들의 비례 역시 실제 건축물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좁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 또한 현실적 용도보다 상징적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춘 구조이다. 더 나아가, 에스겔 본문은 출애굽기나 열왕기와 달리 실제 건

21) 단위 사용에 대한 논쟁은 다음을 참조하라. Grumbles, *YHWH Is There*, 117-26.

축 재료, 공사 과정, 장식 기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성전을 물리적 건축물이 아닌 환상적 공간으로 읽도록 만든다. 이에 대해 Block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22)</sup>

분석적인 어조가 현실감을 주고, 이전 계획들의 많은 회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사된 구조물을 건설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없다. 더욱이, 디자인은 많은 이상적인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록된 치수는 건축 계획에 필요한 수직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평 측정값뿐이다. 따라서 이 성전 순례 기록의 목적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전 측량의 목적은 무엇인가? 에스겔서 전체 구조 속에서 살펴보면 본문은 8-11장에서 떠난 하나님 영광의 귀환을 위한 공간적, 제의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43:1-5). 성전 측량은 역사적이며 문자적인 묘사라기보다 측량-입장-구획-정결 영역의 점진적 접근이라는 서술 패턴을 따르고 있다. 측량 행위는 단순 기술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혼란한 세계 위에 다시 그려지는 행위이다. 철저한 측량이 강조되는 이유는 에스겔서 8-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근본적인 원인인 이스라엘의 불결함과 우상숭배에 대한 신화적인 답변이기 때문이다. 성전이 파괴되고 영광이 떠난 것은 백성의 제의적 부패 때문이었기에, 영광이 다시 돌아와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정화되고 구별된 질서가 필요하다. 에스겔 43:10에서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기록한다. 성전 환상의 거룩함은 그들의 과거 죄악을 더욱 대비되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22)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510-11.

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성전을 더럽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과거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다(11절, 참조. 겔 16:63).<sup>23)</sup> 나아가 상세한 측량은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이상적인 거룩한 공간을 상징적이며 신학적으로 보여준다.<sup>24)</sup> 둘째, 성전 구조의 의미이다. 성전 구조에서 독특한 점은 성전 바깥 외벽에 대한 측량이다(40:5-16; 42:15-20). 높이와 두께는 모두 6 규빗(약 3.2m)이며, 건물의 다른 장소들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성전 외벽만이 유일하게 높이를 언급한다.<sup>25)</sup> 성전의 거대한 규모나 벽의 상당한 두께는 물리적 성전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을 세속적 영역과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다.<sup>26)</sup> 에스겔 42:20에서 성전 벽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לְהַבְדִּיל בֵּין הַקְּדוֹשׁ לְהַלְלִי)이라고 명시한다. 성전의 벽을 통해 다시는 속된 것이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성전 환상은 성전의 공간적 배치를 통해 신학적 사상을 표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즉, 거룩이 공간 속에서 조직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거룩의 층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공간적 신학으로 읽을

23) Margaret S. Odell, *Ezekiel* (Macon, G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5), 498-500.

24) 성전 측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고대 근동에서 성전 비문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던 문학적 관습이다. 구데아가 신 닝기르수를 위한 성전을 기념하여 기록한 구데아 원통 비문과 에스겔 성전 환상은 명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측량 행위는 건축 과정의 기록을 넘어선다. 이는 성전 디자인에 구현된 거룩함의 등급화를 명확히 하며, 신의 명령과 계획에 따른 완전한 성역의 회복을 상징한다. 참조. Diane M. Sharon, “A Biblical Parallel to a Sumerian Temple Hymn? Ezekiel 40-48 and Gudea”, *JANES* 24 (1996): 99-109;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510.

25) Iain M. Duguid, *Ezekiel* (Grand Rapids: Zondervan, 2011), 473.

26) Leslie C. Allen, *Ezekiel 20-48* (Dallas: Thomas Nelson, 1990), 236; Tuell, “Ezekiel 40-42 as a Verbal Icon”, *CBQ* 58 (1996): 650-51.

수 있다.<sup>27)</sup> 에스겔 성전은 중심(지성소)에서 주변(성벽 밖)으로 퍼져가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진다. 지성소의 특징은 솔로몬 성전과 달리 언약궤, 그룹 천사 등 조형물이 없고 내부가 비어 있다(41:4).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와 무형성 임재를 나타내는 최고로 거룩한 공간임을 나타낸다. 성소는 제사장만 접근이 가능한 매우 거룩한 곳이며(41:1-26), 내부 뜰은 제의 기능을 감당하고 정결 유지를 위해 제한적 접근이 허용되는 곳이다(40:28-47). 외부 뜰은 백성의 접근이 가능한 곳이며 거룩의 정도는 낮은 곳이다(40:17-27).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거룩함의 정도와 그에 따른 접근 방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sup>28)</sup>

## 2) 희생 제사와 지도자들에 대한 해석(겔 43-46장)

### (1) 희생 제사

에스겔 43-46장의 희생제사는 성전 환상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본문은 번제 · 속죄제 · 소제 · 감사제 · 희생 규례를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하며(43:18-27; 45:15-25; 46:1-15), 이는 모세 오경의 율법과 구조적 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sup>29)</sup> 이 때문에 학자들은 에스겔의 제사 규정을 문자적 성전 재건의 청사진인지, 아니면 상징적 · 신학적 · 종말론적 언어인지를 두고 논쟁해 왔다. 문자적 해석 전통은(예: 세대주의, 전천년설주의 계열) 에스겔의 제사가 미래 성전에서 실제로 회복될 희생 제사 제도라고 주장한다. L. E. Cooper는 “메

27) Kalinda R. Stevenson, *The Vision of Transformation: The Territorial Rhetoric of Ezekiel 40-48* (Atlanta: Scholars Press, 1996), 37-48.

28)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571-74.

29) 모세오경과 에스겔서의 희생 제사 규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674-77.

시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의 예배에서 지켜야 할 준수 규례”로 해석한다.<sup>30)</sup> 마찬가지로 J. M. Hullinger도 천년 왕국 시대에 “부정함을 씻어내고 제거하는 제사 행위”라고 말한다.<sup>31)</sup> 그러나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히 10:10-18)와의 조화, 제사의 효능을 ‘기념제’로 축소하는 신학적 난점을 발생시킨다. 반면 상징적·신학적 해석은 에스겔의 제사를 죄 사함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 제사로 보지 않고, 성전 환상 전체가 지닌 임재, 거룩의 질서(the order of holiness)를 드러내는 상징적 의례 장치로 본다.<sup>32)</sup> 특히 43:1-5의 영광 귀환 이후 제사 규정이 제시되는 것은, 제사가 “죄 사함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정결-의례적 구조임을 나타낸다.<sup>33)</sup> 이 관점에 따르면 43-46장의 제사는 과거 제의의 반복이 아니라, 새 창조 공동체가 하나님 임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예배적 패턴이다. 또한 종말론적 해석은 에스겔의 제사를 미래 성전의 구체적 제도가 아니라, 종말론적 예배의 모형적 묘사(typological portrayal)로 이해한다.<sup>34)</sup> 성전 구조가 비현실적이듯, 제사 규례 또한 문자적 회복보다 하나님 통치 아래 질서화된 예배 공동체 회복을 상징한다. 결국 에스겔의 제사는 과거의 제사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회복과 거룩의 유지, 그리고 공동체의 정결이라는 신학적 주제들을 제의 언어로 표현한 비전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구속사적 맥락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30) Cooper, *Ezekiel*, 402. 쿠퍼는 과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회상하는 기념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기념설).

31) Hullinger, “The Problem of Animal Sacrifices in Ezekiel 40-48”, 289. 희생 제사가 미래 성전과 땅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기능을 할 뿐, 속죄나 대속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32)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677.

33)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612-13.

34) Grumbles, *YHWH Is There*, 157-65.

## (2) 지도자들: 제사장 제도와 군주

에스겔 44장은 성전 환상(40-48장) 안에서 거룩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핵심 본문으로, 일반 레위인과 사독계 제사장에 대한 구분은 성전 공동체의 정체성과 예배 질서의 근간을 형성한다. Block은 이 본문이 단순한 제사장 정치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신학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토라적 계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sup>35)</sup> 회복된 성전 비전에서 소개되는 성전 지도자들은 일반 레위인들, 사독계 제사장, 군주가 있다.

첫째, 일반 레위인(44:10-14). 일반 레위인은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한 배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한다 (כָּשֵׂא אֲשֶׁר עָשָׂה).” 이들은 성전 문지기, 제사 보조자 역할, 성전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은 하나 성소 중심부 접근은 제한된다. 일부 비평주의 학자들은 레위인이 제사장직에서 “강등(demotion)”된 것으로 해석하나, 이와 반대로 블럭은 오히려 에스겔은 레위인을 민수기 18장의 본래 역할-문지기, 성전 경비, 희생 준비의 보조자-로 복귀시키는 ‘기능의 조정’을 수행한다고 본다.<sup>36)</sup> 44장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의 죄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레위인의 직무 복귀의 희망적인 제시를 한다. 이는 레위인들은 거룩한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정결과 경계 기능을 하고, 이는 성전 공간 구조의 외곽-중간-중심의 거룩의 위계에 부합하다. 레위인은 성전 봉사의 필수 요소로 남되, 그들의 과거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간 지대의 ‘거룩 보호막’ 역할을 감당한다. 성전 직무의 높고 낮음은 거룩을 유지하

35)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612-13.

36) 참조.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121-51; Paul M. Joyce, *Ezekiel: A Commentary*,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482 (New York: T & T Clark, 2007), 232-33.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635-37; Stevenson, *The Vision of Transformation*, 66-78.

는 기능적 질서에 기초한다.

둘째, 사독계 제사장(44:15-16). 에스겔에서 중심 제사장직을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에스겔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배도하던 때 성소를 지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의 충성을 거룩성의 기준(model of holiness)으로 삼는다. 이는 정치적 사독계 우월성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성전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 ‘거룩성의 보존’이라는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독계 제사장은 피와 기름을 다루고(44:15-16), 제단과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계층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의 최중심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레위인과 사독 제사장 집단의 구별은 결국 성전의 거룩 위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sup>37)</sup> 에스겔의 성전은 단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조직된 거룩의 체계이며, 제사장 제도는 이 체계를 인적 구조로 구현한다. 레위인은 외곽 거룩을 수호하고, 사독계는 중심 거룩을 감당함으로써 성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질서화된 예배 공동체로 재편된다.<sup>38)</sup> 따라서 에스겔 44장의 제사장 제도는 과거 제도에 대한 단순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종말론적-신학적 질서의 재창조로 이해해야 하며 예배자의 거룩과 충성의 자질을 소개한다.

셋째, 군주(נָשִׂא, 나씨) (45:16-17; 46:2-12). 에스겔 44-48장에서는 왕(מֶלֶךְ)이 아닌 “군주(prince)”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된다. 이는 정치적 다윗 왕조의 복권을 말하기보다, 포로기 이후의 성전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권 아래 제한되고 정화된 지도자상을 제시하는 신학적

37) Duguid, *Ezekiel*, 490.

38) Christopher J. H. Wright, *The Message of Ezekiel: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340-50.

용어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나씨는 왕처럼 정치적 절대 권위를 행사하는 인물이 아니라, 성전 질서 안에서 제의를 지원하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이다. 에스겔 45:16-17과 46:2-12은 나씨가 절기와 제사에서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제물을 드리고, 성전 문을 통해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처럼 지성소나 제단 중심부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사독계 제사장 권위를 침범할 수도 없다. 이는 왕권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으며, 거룩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속함을 명확히 한다. 또한 에스겔 46:18은 나씨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여, 과거 왕권의 폭정(겔 22:27; 왕상 21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나씨는 성전 공동체의 예배와 질서를 담당하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거룩성에 종속된 대표자적 권위(representative authority)를 가진다. 에스겔 성전 신학에서 나씨는 제사장직과 경쟁하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질서 속에서 겸손과 순종의 지도자로 위치한다. 나아가 나씨는 메시아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예비하고 예표하는 모형론적 가치를 지닌다.<sup>39)</sup>

### 3) 생명수와 땅 분배에 대한 해석(겔 47-48장)

#### (1) 생명수

에스겔 47장의 생명수 비전은 성전 환상(40-48장) 가운데 가장 상

39) 나씨가 메시아적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 많은 해석학적 논의가 있다. 만약 메시아적 인물이라면 그에게 죄에 대한 경고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과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바칠 필요가 있는지? 과연 그에게 자녀들이 있는지(46:16)? 그러나 모형론적 해석은 본문의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원형 혹은 실체(antitype)에 모두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씨는 메시아 시대의 이상적 통치를 모형론적으로 예표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다. 참조, Grumbles, *YHWH Is There*, 149-54.

징성과 논쟁성이 큰 본문이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아라바(사해)까지 도달하여 죽은 바다를 치유하는 장면은 문자적이며 역사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학적 논쟁을 낳아 왔다. 첫째, 문자적 해석은 이것을 천년 왕국에서 실제로 일어날 지리적·생태학적 변화로 보지만, 본문이 제시하는 수문학적 규모-성전에서 바다까지 증가하는 수량, 사해 변형의 급격함-은 고대 팔레스타인 자연환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자적 독법은 비현실적 공간 구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문제에 직면한다. 둘째, 상징적·신학적 해석(symbolic-theological)은 생명수를 하나님의 임재 회복(43:1-5)의 자연적 결과로 보며, “물”은 성전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확장되는 거룩성, 생명, 치유의 확산을 상징하는 요소로 읽는다. 이 견해는 창세기 2장의 에덴에 발원하는 강들, 스가랴 14:8의 종말론적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와 연속선상에서 에스겔 47장을 해석하며, 성전은 새 창조 질서의 원천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강조한다. 문제는 본문의 구체적 거리 계산(47:3-5), 어종과 높지 묘사 등 세부 묘사가 단순 상징으로 축소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종말론적-모형론적 해석(eschatological-typological)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문자적 혹은 순수 상징으로 이분법화하지 않고, 에스겔 성전 환상 전체를 미래 새 창조 질서의 모형적 묘사로 해석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명수는 역사적 실현 여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창조 세계가 받는 전면적 치유와 회복이라는 신학적 현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읽는다. 특히 생명수가 점점 깊어지는 구조는 성전에서 시작된 거룩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장되는 에스겔의 공간적 신학(concentric holiness)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에스겔 47장의 해석학적 핵심 쟁점은 성전 환상 전체가 제시하는 새 창조 질서, 임재의 회복, 거룩의 확산이라는 신학적 구조를 생명수 비전이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생명

수는 에스겔 성전 신학의 절정이자 요약으로서, 임재가 회복된 하나님 백성에게 부여되는 우주적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학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 (2) 땅분배

에스겔 48장은 성전 환상(40-48장)의 종결로서,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재구조화한 새 공동체 질서의 완성을 보여준다. 본문의 지파별 땅 분배는 여호수아서와 달리 지리, 규모, 인구에 근거하지 않고 북-남으로 평행하게 나열된다(1-7절). 이러한 구획은 팔레스타인 실제 지리와 상이하여 여러 주석가들이 지적하듯 문자적 지리 묘사라기보다 ‘임재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시각화하는 상징적이며 신학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sup>40)</sup> 특히 땅의 중앙부가 제사장-레위인-도성 지역으로 배분되는 구조는 성전 내부의 거룩 질서가 이제 땅 전체로 확장되는 공간 신학을 형성한다. 즉, 에스겔의 땅 분배는 거룩의 집중과 확산이라는 에스겔 성전의 공간 논리가 공동체 전체에 적용된 결과이다. 군주의 토지는 거룩한 땅 좌우에 고정적으로 배치되며(21-22절), 그는 백성의 기업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는 과거 왕권의 토지 수탈과 불의(겔 22:27; 왕상 21장)를 종말론적으로 교정하는 조치로 이해되며, 새 공동체가 공의, 평등, 포용, 책임성을 지닌 토라적 질서 위에 세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47:22-23).<sup>41)</sup> 따라서 48장의 공간 배열은 신학적 지형 구조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구조까지 임재의 회복 아래 재정렬된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을

40)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723; Duguid, *Ezekiel*, 541; Greenberg, “The Design and Themes of Ezekiel’s Program of Restoration”, 199-208.

41) Stephen L. Cook, *Ezekiel 38-4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2B (Yale University Press, 2018), 288-92; Wright, *The Message of Ezekiel*, 360-63.

체화한 것이다. 본문의 최종 선언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יהוה שׁמָא)”는 성전 환상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자 핵심 신학이다. 에스겔 8-11장의 영광 이탈(11:22-23)을 회복시키는 이 선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단지 성전이 아니라 도성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어디에나 거하신다는 임재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성전이 임재의 중심이지만, 그 임재가 도성, 땅, 공동체 전체로 흐르는 생명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창조 공동체를 완성한다. 결과적으로 48장의 땅 분배와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환상의 결말로서, 임재, 거룩, 공의, 새 창조 질서의 종합적 비전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종말론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 3. 에스겔 40-48장과 신약과의 관계

에스겔 40-48장은 독특한 성전, 제사, 땅 신학을 제시하지만, 신약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신학적 지평이 한층 더 명확해진다. 신약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재현하기보다, 그 상징과 구조를 그리스도와 새 창조의 성취 안에서 재해석한다.<sup>42)</sup> 에스겔 환상의 핵심 주제-성전(40-42장), 희생제사와 지도자(43-46장), 생명수의 확산(47장), 새 땅 공동체(48장)-은 모두 신약의 종말론적 성취와 깊은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다. 첫째, 성전 자체의 재정의에서 신약은 에스겔과 강한 연속성을 보인다. 에스겔의 성전은 과거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새롭게 정착하는 중심 구조이며, 신약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참 성전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적 전환으로 수용한다(요 2:19-21, 엡 1:22-23). 요한계시록 21:22은 “성 안에서

42) G. K. Beale,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NSBT 17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365-73.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선언하여, 에스겔이 제시한 임재 중심 신학을 그리스도-하나님 임재의 직접성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한다. 따라서 신약의 성전 이해는 에스겔 40-48장의 구조적·상징적 성전 신학의 실제적 성취라 할 수 있다. 둘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겔 47장)는 신약에서 명확하게 성령의 부어짐과 재창조적 생명으로 재해석된다. 예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39)고 말하며, 성령의 부어짐을 생명수 이미지로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 역시 에스겔 47장의 언어와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여, 성전 중심 임재가 우주적 치유로 확장되는 패턴을 궁극적으로 성취한다.<sup>43)</sup> 에스겔의 생명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임재가 세계를 치유하는 방식에 대한 예언적 모형이며, 신약은 이를 성령의 사역으로 구현한다. 셋째, 희생제사에 대한 신약의 재해석은 에스겔의 제사 신학과 대조를 이루면서도 해석학적 통일성을 제공한다. 에스겔의 제사는 정결·거룩·공간 보호라는 의례적 기능을 강조했고(43-46장), 히브리서는 동물 제사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히 9:13)이라고 말하며 동일한 범주에서 이해한다. 반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10:10-14) 양심을 정결케 하는 최종적이며 완전한 속죄이다. 따라서 에스겔의 제사와 신약의 속죄는 기능이 상이한 두 차원-성전 공간의 정결 유지 vs. 인격적·종말론적 구원-에 속한다. 신약은 에스겔의 제사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 틀을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재정의한다. 넷째, 새 땅 분배와 ‘여호와 삼마’(겔 48:35)는 신약의 새 예루살렘 종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에스겔 48장의 도성 이름 결론은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임재의 영속

43) Grant R. Osborne,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772.

성을 선언하며, 계시록 21:3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라는 동일 구조를 반복한다. 또한 요한 계시록 21,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지리적·상징적 구성(정방형 성, 열두 지파의 이름, 생명수 중심 구조)은 에스겔 48장의 공간 신학을 종말론적으로 확대해 모형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sup>44)</sup> 에스겔이 제시한 새 땅은 신약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임재가 도성 전체를 채우는 우주적 성전으로 발전한다. 결론적으로 신약은 에스겔 40-48장을 문자적·건축학적 청사진으로 읽기보다, 임재-거룩-생명-새 창조의 신학적 주제들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죄, 성령의 임재, 새 창조 종말론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실체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신약의 종말론과 성전 신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구속사적 연결고리이며, 그 상징은 신약에서 종말론적이며 모형론적 실재로 확장된다.

#### 4. 에스겔 성전 환상의 설교적 함의

앞선 논의에서 보았듯이 에스겔 40-48장은 문자적·알레고리적 해석을 넘어, 신학적·종말론적·모형론적 관점에서 읽을 때 가장 설득력 있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학적 통찰은 설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원리를 제공하는가? 이제 에스겔 성전 환상이 지닌 설교적 함의를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면서 설교자를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해석학적 전제와 설교 본문 선택

에스겔 40-48장은 장르가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환상 본문이라는

44) Osborne, *Revelation*, 749-54.

인식에서 설교가 출발해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장르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 본문의 분위기와 움직임 가능한 설교에 반영하려고 해야 한다.<sup>45)</sup> 이 과정에서 성전 치수와 구조, 제사 규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자의적인 알레고리로 환원하려는 두 극단을 경계해야 한다.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되, 본문이 제시하는 이상적 구조와 비현실적 치수, 상징적 요소들을 신학적 의미와 연결시키고 현대의 청중들에게 적용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교해야 한다.<sup>46)</sup> 또한 에스겔 환상 본문의 장르적 특징들도 결국 정경의 구속-언약적 거대 흐름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sup>47)</sup> 즉, 설교자는 에스겔 성전 환상을 구속사적, 정경적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sup>48)</sup> 칼빈이 지적하듯이, 모든 세부를 문자적으로 재건하려는 시도는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며, 반대로 역사적 기반을 무시한 영적·알레고리적 해석도 본문의 실체를 훼손한다.<sup>49)</sup> 설교 본문 선정에 있어서는 단편적 구절 인용보다는, 범위가 넓지만 문단 단위의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된 본문의 바른 해석을 통해 핵심 주제를 찾고 그것이 설교 구조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sup>50)</sup> 예를 들어,

45) Paul Scott Wilson, *Setting Words on Fire: Putting God at the Center of the Serm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102.

46)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101-3.

47) 김대혁, “본문성(Textuality)과 정경성(Canonicity)의 통합이 지니는 설교학적 함의”, 『복음과 실천 신학』 68 (2023): 38.

48)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257-61; Rein Bos, *We Have Heard That God Is with You: Preach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8), 28-43.

49) 이희성, “네 생물 환상(겔 1:1-28)에 대한 칼빈의 해석: 평가와 제언”, 『성경과 신학』 92 (2019): 6-9.

50) 황중석,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Effective and Communicative) 설교 작성을 위한 구조연구”, 『복음과 실천 신학』 73 (2024): 157-58.

40-42장은 “거룩의 공간 질서”와 “측량의 의미”을, 43장은 “영광 귀환과 제사의 의미”를, 44-46장은 “거룩한 직분과 지도자상, 예배 공동체의 질서”를, 47장은 “생명수와 회복의 비전”을, 48장은 “땅 분배와 여호와 삼마 공동체”를 각각의 설교 단위로 다룰 수 있다. 설교자는 가능한 한 전체 비전 속에서 해당 본문의 기능과 신학적 위치를 설명하고, 세부 묘사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성전 신학과 교회·예배에 대한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는 단순히 성경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문에서 도출된 신학적 의미를 오늘날 청중의 삶의 자리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그 생명력이 온전히 보존된다.<sup>51)</sup>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겔 성전 환상의 신학적 의미는 설교자가 현대 교회론과 예배론을 성경신학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제공한다. 첫째, 성전의 구조와 측량에 대한 묘사(겔 40-42장)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의 성격과 질서를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교자는 성전의 구획과 벽, 동심원적 거룩의 구조를 통해, 교회 건물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에스겔 성전에서 강조되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오염과 우상으로부터의 분리, 거룩과 속됨의 구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의 규모나 외형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설교적 적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43-46장의 제사 규례는 예배의 본질과 질서를 다루는 설교에서 중요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한다. 에스겔의 제시는 과거

51) 임도균, “설교의 생명력 증진을 위한 연구: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신학』 76 (2025): 117-18.

죄 사함을 위한 반복 제의가 아니라, 이미 임재하신 영광 앞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며 예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조이다. 설교자는 희생 제사의 상세 묘사를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대비시키면서, 오늘날 예배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산 제물”(롬 12:1)로 드리는 전인격적 예배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에스겔의 제사 언어는 예배 형식 논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거룩한 삶의 패턴을 설교하도록 이끈다. 셋째, 성전 환상 속 제사장 제도와 군주(44-46장)는 교회 지도자상에 대한 설교적 통찰을 제공한다. 레위인과 사독계 제사장의 구분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 시대에도 성소를 지킨 거룩한 충실성이 중심부 봉사의 자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교회 직분과 리더십에 대한 설교에서, 기능과 역할의 서열화보다 거룩과 충성, 신실한 섬김을 지도자의 핵심 자질로 제시하게 해 준다. 또한 군주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대표하되 토라의 제한을 받는 지도자로 나타난다. 이는 교회 정치와 리더십에 대한 설교에서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복종하는 대표자적 리더십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 3) 거룩과 공동체 윤리에 대한 설교

에스겔 성전 환상은 거룩과 공동체 윤리에 대한 설교를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 행위와 은혜의 현실에 근거한 삶의 응답으로 제시하도록 이끈다. 즉 본문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선포함으로써 윤리적 삶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러한 관점은 윤리를 인간의 의지나 종교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새 질서 창조에 참여하는 응답으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에서 찾고 적용하여 청중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up>52)</sup>

첫째, 에스겔의 공간 신학-지성소에서 성벽 밖으로 확장되는 동심원적 구조와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흐름-는 거룩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은혜의 결과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실 때 공동체와 세계가 치유되는 신학적 현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설교자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 거룩과 생명이 삶의 전 영역으로 흘러가게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윤리적 실천을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위치시키며, 예배와 일상, 교회 안 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둘째, 에스겔 48장의 땅 분배와 ‘여호와 삼마’ 선언은 사회·정치·경제적 윤리를 직접 명령하기에 앞서, 하나님 자신이 새 질서의 주체이자 주권자이심을 선포한다. 에스겔의 새 땅에서는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공평하게 재구성된다. 이는 정의와 공의가 인간의 이상적 제도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질서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때 실현되는 은혜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설교자는 이 본문을 통해, 임재의 회복이 곧 정의의 회복이며, 공동체 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롭게 재편된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52) Wilson, *Setting Words on Fire: Putting God at the Center of the Sermon*, 4. 경험적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태현, “포스트모던 한국교회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 『복음과 실천 신학』 77 (2025): 066-113.

거하는 공동체는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응답하며 토지와 권력과 재화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셋째, 에스겔 성전 환상은 공동체 회복과 정체성 재구성을 인간 중심의 개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로 제시한다. 포로 공동체의 회복은 회개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돌아오게 하시고(겔 43:1-5), 더 이상 우상과 부정이 임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의 구조를 새롭게 조직하시는 데서 시작된다. 설교자는 이를 통해, 오늘날 상실과 분열, 도덕적 실패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 잘해 보자”는 도덕적 촉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 회복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복음적 선언을 전할 수 있다. 결국 에스겔 성전 환상이 제시하는 윤리는 인간적 노력의 강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새 언약의 성령 역사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며, 윤리적 실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자리매김된다.

#### 4) 종말론적 희망과 목회적 위로에 대한 설교

에스겔 성전 환상은 종말론적 희망과 목회적 위로의 설교 텍스트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첫째, 에스겔 40-48장은 “이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여주는 계시이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현재 경험하는 교회의 연약함, 신앙의 실패, 세속화와 박해, 개인의 상실과 상처 속에서,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님은 폐허 위에 새로운 성전을, 황무지 위에 생명수를, 분열된 땅 위에 공평한 분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점을 설교할 수 있다. 둘째, 요한계시록과의 연관 속에서 에스겔 성전 환상은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 비전과 연결된다. 설

교자는 에스겔 47장의 생명수와 48장의 “여호와 삼마”를 계시록 21-22장과 연결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계 21:22), 생명수가 생명나무를 적시며(계 22:1, 2),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계 21:3)는 종말론적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위로뿐 아니라, 현재를 그 종말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부르는 소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에스겔 성전 환상은 회개의 소명과 소망의 위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43:10-11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보여주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설교자는 에스겔 환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우상과 불의를 직면하도록 촉구하는 회개 설교와, 회개하는 공동체 위에 여전히 성전을 설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소망의 설교를 함께 전해야 한다. 회개 없는 회복 약속은 값싼 위로가 되며, 회복의 비전 없는 회개 촉구는 절망만을 심을 뿐이다. 에스겔의 성전 비전은 이 둘을 긴장 속에서 통합하는 설교 모델을 제공한다.

### III. 나가는 글

본 논문은 에스겔 40-48장이 지닌 해석학적 난제와 설교적 소외라는 이중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성전 환상을 역사적 맥락과 문학적 구조, 신학적 주제, 신학과의 정경적 연관성 속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모형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에스겔 성전 환상의 본질에 대한 주요 해석(알레고리적, 문자적-미래적, 문학적-상징적, 신학적-종말론적)을 검토하면서, 문자주의와 상징주의를 넘어서는 신학적·종말론적 해석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성전 측량과 구조, 희생 제사와 지도자, 생명수와 땅 분배라는 핵심 주제를 분석하여, 에스겔 성전

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임재와 거룩의 질서, 새 창조 공동체의 청사진”임을 보였다. 또한 신약과의 관계를 통해, 에스겔 성전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성령의 임재, 새 예루살렘 종말론 안에서 성취되는 구속사적 연결고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설교자를 위한 지침-정경적 ·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교회와 예배에 대한 성전 신학의 적용, 거룩과 공동체 윤리, 종말론적 희망과 목회적 위로의 통합-을 제시함으로써 에스겔 40-48장이 더 이상 설교 현장에서 회피되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다시 들어야 할 회복의 메시지임을 강조하였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파괴된 성전과 상실된 정체성을 넘어,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선언으로 끝을 맺는다. 이 선언은 포로 공동체에게 주어진 종말론적 약속이자, 오늘날 교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학적 고백이다. 본 논문이 에스겔 40-48장의 신학적 풍성함과 설교적 잠재력을 재조명함으로써, 강단에서 이 본문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는 설교가 더욱 풍성해지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김대혁. “본문성(Textuality)과 정경성(Canonicity)의 통합이 지니는 설교학적 함의”. 『복음과 실천 신학』 68 (2023): 011-045. <https://doi.org/10.25309/kept.2023.08.15.011>
- 박태현. “포스트모던 한국교회와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 『복음과 실천 신학』 77 (2025): 066-113. <https://doi.org/10.25309/kept.2025.11.15.066>
- 이희성. “네 생물 환상(겔 1:1-28)에 대한 칼빈의 해석: 평가와 제언”. 『성경과 신학』 92(2019): 1-30.
- 이승진. “언약해석학에 따른 성경해석과 강해설교를 위한 원리와 과정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신학』 75 (2025): 015-080. <https://doi.org/10.25309/kept.2025.05.15.051-080>
- 임도균. “설교의 생명력 증진을 위한 연구: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신학』 76 (2025): 107-138. <https://doi.org/10.25309/kept.2025.08.15.107>
- 임도균.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목적 고찰과 제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력 증진”. 『복음과 실천 신학』 71 (2024): 123-150. <https://doi.org/10.25309/kept.2024.05.15.123>
- 황종석.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Effective and Communicative) 설교 작성을 위한 구조연구”. 『복음과 실천 신학』 73 (2024): 141-164. <https://doi.org/10.25309/kept.2024.11.15.141>
- Allen, Leslie C. *Ezekiel 20-48*.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29. Dallas: Thomas Nelson, 1990.
- Battles, F. L. *Gregory the Great: Homilies on the Prophet Ezekiel, Book I: A Translation and Critical Study*, vol I. Hartford Seminary Foundation, PhD, 1950.
- Beale, G. K.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NSBT 17.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4.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Bos, Rein. *We Have Heard That God Is with You: Preaching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8.
- Childs, Brevard S.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Cook, Stephen L. *Ezekiel 38–4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Commentary 22B.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8.
- Cooper, Lamar E. *Ezekiel*, NAC 17. Tennessee: Broadman&Holman Publisher, 1994.
- de Boer, Erik A. *John Calvin on the Visions of Ezekiel: Historical and Hermeneutical Studies in John Calvin's sermons inédits, especially on Ezekiel 36–48*. Kerkhistorische Bijdragen, vol. 21, Brill Academic Publishers, 2004.
- Kerkhistorische Bijdragen 21. Leiden: Brill, 2004.
- Dempster, Stephen G. *Dominion and Dynasty: A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NSBT 15.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4.
- Duguid, Iain M. *Ezekiel*.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11.
- Foher, Georg. *Ezechiel*, HAT 13. Tübingen: Mohr Siebeck, 1957.
-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 Greenberg, Moshe. "The Design and Themes of Ezekiel's Program of Restoration". *Interpretation* (1984): 181–208.
- Gentry, Peter J.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Wheaton: Crossway, 2012.
- Gese, Hartmut.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kiel (Kap 40.48):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Tübingen: Mohr Siebeck, 1957.
- Grumbles, Drew N. *YHWH Is There: Ezekiel's Temple Vision as a Type*. Eugene, OR: Wipf & Stock, 2021.
- Hitchcock, Mark L. "A Critique of the Preterist View of the Temple in Revelation 11:1–2". *BSac* 164 (2007): 219–36.
- Hölscher, Gustav. *Hezekiel: Der Dichter and Das Buch*, BZAW. Giessen,

- Germany: A. Topelmann, 1924.
- Hullinger, Jerry M. "The Problem of Animal Sacrifices in Ezekiel 40-48". *Bibliotheca Sacra* 152 (1995): 279-89.
- Joyce, Paul M. *Ezekiel: A Commentary*.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482 New York: T & T Clark, 2007.
- Kaiser, Walter C. *Preaching and Teaching the Last Things: Old Testament Eschatology for the Life of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 Levenson, Jon D. *Theology of the Program of Restoration*. Missoula: Scholars Press, 1976.
- . "The Temple and the World". *Journal of Religion* 64 (1984): 275-98.
-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New, Geoff. "The Voice: From Text to Life: What Ezekiel Teaches Preachers "THE LORD IS THERE"". *Stimulus* (2015): 36-37.
- Niditch, Susan. "Ezekiel 40-48 in a Visionary Context".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8 (1986): 208-24.
- Odell, Margaret S. "Reading Ezekiel, Seeing Christ: The Ezekiel Cycle in the Church of St. Maria and St. Clemens, Schwarzrheindorf". In *After Ezekiel: Essays on the Reception of a Difficult Prophet*. Edited by Paul M. Joyce and Andrew Mein. T & T Clark: New York, 2011, 124-36.
- Odell, Margaret S. *Ezekiel*. Macon, G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5.
- Origen, *Homelies on Ezekiel*. French & Latin. Edited by M. Borret. Paris: Editions du Cerf, 1989.
- Sharon, Diane M. "A Biblical Parallel to a Sumerian Temple Hymn? Ezekiel 40-48 and Gudea". *JANES* 24 (1996): 99-109.
- Stevenson, Kalinda R. *The Vision of Transformation: The Territorial Rhetoric of Ezekiel 40-48*. Atlanta: Scholars Press, 1996.
- Tuell, Steven Shawn. "Ezekiel 40-42 as a Verbal Ic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8 (1996): 649-64.
- VanGemeren, Willem A.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An Introduction to the Prophetic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1996.

Wellhausen, Julius.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New York: Meridian, 1957.

Wilson, Paul Scott. *Setting Words on Fire: Putting God at the Center of the Serm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Wright, Christopher J. H. *The Message of Ezekiel: A Hew Heart and a New Spiri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1.

## 【 Abstract 】

Interpretation and Homiletical Implications of  
Ezekiel 40-48

Lee, Hee Sung

This article re-examines the interpretive challenges surrounding Ezekiel 40-48 and offers an integrated theological and homiletical reading of the prophet's climactic temple vision. After critically surveying major interpretive traditions—allegorical, literal-futurist, symbolic-literary, and theological-eschatological—the study adopts a redemptive-historical and typological approach that incorporates the strengths of these perspectives while avoiding the historical constraints of literalism and the abstraction of pure symbolism. Within this framework, the temple measurements, sacrificial regulations, priestly and princely roles, the river of life, and the apportionment of land are analyzed as coherent elements of a unified theological pattern centered on the restoration of divine presence and the expansion of holiness. The study further explores how Ezekiel's temple vision is received and transformed in the New Testament, where it finds fulfillment in Christ's temple ministry,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and the eschatological vision of the New Jerusalem.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homiletical significance of this interpretation, arguing that Ezekiel 40-48 should be preached not as a technical blueprint or a moralizing vision but as a proclamation of God's prior and gracious activity that summons the community to faithful response. By articulating preaching principles related to holiness, communal ethics, worship, and eschatological hope, this study seeks to equip preachers to handle this difficult text with theological depth and pastoral clarity. Ultimately, Ezekiel's temple vision emerges not as a plan for a future building but as a theological architecture of renewed creation, offering enduring significance for contemporary biblical theology and Christian preaching.

**Key Words** : Ezekiel 40-48, Temple Vision, Redemptive-Historical Typology, Divine Presence, Homiletical Implications